

한가위 3900만명 '민족대이동' 시작

광주·전남 주요도로·버스터미널·기차역 등 끝없는 '귀성행렬'

세월호 참사·불황에 가족 소중함 느끼며 고향체류 기간도 늘어

유난히 우울했고 가족의 소중함이 더 절실했던 탓일까. 극심한 교통체증에도 한가위를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발걸음은 예년보다 늘어났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광주·전남 주요 도로와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5일~11일) 고향을 찾는 인원이 3945만명

에 이를 것"이라며 "특히 추석 당일인 8일에는 최대 741만명이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4일 밝혔다.

고향을 그리는 '3900만명의 대이동' 행렬은 지난해 추석(3482만명)에 비해 13.3% 늘어난 것으로, 세월호 참사와 지속적인 불황 등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국민이 많아지면서 귀성행렬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향에서 머무는 날짜도 다소 늘었다. 10년 전에 비해 1박 2일 고향에 머무는 경우가 7.1%(25.1→32.2%) 증가했고 2박 3일도 5.7%(24.2→29.9%)로 늘어났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05만대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5일부터 서둘러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고속도로가 정체 현상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석을 이틀

앞둔 6일 오전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광주 최대 8시간, 서서울~목포 9시간, 서울~부산 8시간이 각각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철도 535량, 고속버스 1884회, 항공기 21편, 여객선 170회를 늘려 귀성객 교통 불편을 줄이는 한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교통혼잡상황 및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티웨이 항공, 광주→제주 노선 첫 취항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광주-제주 노선을 첫 취항한 4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공항을 찾은 승객들이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B737-800 최신기종인 티웨이 항공 운항횟수는 하루 세 차례다. 좌석은 189석이며 항공요금은 일반 항공료보다 1만4000원 저렴한 6만1000원(평일 성인기준)이다.

유병언 신고보상금 5억 아무도 못받는다

경찰 "시신 신고자, 유 전회장일 가능성 언급 안해"

송치재 '밀실 별장' 제보자도 추정식 신고에 불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 신고한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

을 발견해 신고한 매실밭 주인 박모(77)씨와 송치재 별장 내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알린 제보자에게 모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112신고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박씨는 번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유 전 회장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비밀공간 여부를 제보한 시민의 경우

"다른 방이나 벽을 잘 살펴봐라", "벽들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르니 찾을 수 있다" 등 추정식 신고에 머물러 범인 검거 공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안병갑 전남경찰청 수사과장은 "유 전 회장에게 걸린 신고보상금이 역대 최고액 수인 5억원에 달해 관심이 쏠린 만큼 관련 법규와 관계기관,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두루 청취했다"면서 "다만 박씨에 대해서는 검거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을 아끼게 한 공로가 인정돼 전남경찰청장 감사장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8 해질 15:47
해짐 18:55 달짐 01:29

마음은 벌써 고향집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9/30	보성	맑음	16/30
목포	맑음	19/29	순천	맑음	19/31
여수	맑음	22/28	영광	맑음	17/29
나주	맑음	18/30	진도	맑음	17/30
완도	맑음	19/30	전주	맑음	18/30
구례	맑음	17/31	군산	맑음	18/27
강진	맑음	16/30	남원	맑음	17/27
해남	맑음	16/30	축산도	맑음	20/26
장성	맑음	17/2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해	남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서부	남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생활지수

식중독	70
운동	50
빨래	9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0:00	03:45
23:08	15:49	
05:23	18:30	
11:25	--:--	

◇주간 날씨

6(토)	7(일)	8(월)	9(화)	10(수)	11(목)	12(금)
☀	☀	☀	☀	☀	☀	☀
17/32	20/30	20/29	19/28	20/27	20/26	20/27

광주·전남 추석연휴 '맑음'...보름달 뜬다

추석 연휴 기간 광주·전남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돼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에 불편은 없겠다.

추석날인 8일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연휴 기간인 6일부터 10일까지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대기 불안정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4일 예보했다.

해상에서도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결이 전반적으로 낮게

일 것으로 보여 도서지역을 오가는 선박 운행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8~10일 남해상에는 물결이 3m 내외로 다소 높게 일 가능성이 있어 도서 지역 귀성객은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연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17~20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추석날 보름달이 뜨는 시각과 월출 시각은 광주 오후 6시6분(월출 06시04분), 목포 6시8분(월출 04시56분), 순천 오후 6시04분(월출 04시51분)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자사고 지정·취소 장관 동의 철회를"

장학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4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교육자치에 역행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시 교육부 사전협의 절차를 사전 동의 바꾸는 것은 입법권한을 남용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자치사무에 사전 동의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교육감의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빼앗는 것으로 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뒤바꾸는 행위로 교육자치의 본질과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9회 숲솔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투어

정읍 구절초 축제

가을의 서정시를 쓰다!
제9회 정읍구절초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옥빛 물결 아름다운 옥정호
푸른 호수 위에 피어나는 물안개...
그 몽환적 풍경을 배경으로

연보랏빛 은은한 구절초와 짙은 숲향이 어우러져
가을의 서정을 노래하는 그 곳...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올해도 이곳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가을향연이 펼쳐집니다.

숲솔 아래 만개한 가을꽃,
구절초가 장관을 이루는
구절초테마공원에서 펼쳐지는
'숲솔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투어!',
제9회 정읍구절초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선정,
'2014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에 빛나는
정읍구절초축제에서 깊어가는
가을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 정읍시 주관 |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농업정책과 ☎063.539-6173